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이 목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음 6월 23일) 제33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길게 줄지어 운행하는 잼버리 수송 버스

8일 오후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에서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 수송 버스들이 길게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전날인 지난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잼버리 대원 5720명 전북 잔류 결정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 야영장 조기 철수
전북도, 인도 등 10개국 대원에 숙박 · 통역 · 안전관리 등 적극 지원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참가자들이 야영장을 조기 철수했다. 전북에는 5,720명이 남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에 남아 있는 대원들의 영외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활동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 통역 · 안전관리 · 응급의료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가국 156개국 3만7,000여명이 새만금 영지를 떠났다.

개최지인 부안이 속한 전북은 인도, 포르투갈,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몽골 등 10개국 5,720명의 대원이 남아 나머지 잼버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도내 대학 등 곳곳에서 남은 참가자를 위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전북대는 김종석 학생처장을 단장으로 한 'JBNU 새만금 잼버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에서 철수하는 참가자들이 남은 일정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재 전북대 생활관에는 포르투갈 800명, 말레이시아 120명의 참여 대원들이 입소했다.

전북대는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주캠퍼스 1,000여명, 익산 특성화캠퍼스 200여명 등 총 1,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여석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원광대에서는 인도 등에서 온 2200여명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했다.

익산시는 이들에게 숙박 · 관광 · 안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익산에서 남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주대는 720명이, 우석대는 폴란드 400명 · 아일랜드 240명 등 총 640명, 호원대 80명 등을 각각 기숙사에 배치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와 전북도 인재개발원,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진안공고 등에도 각각 국가별로 인원을 배정했다. 현재, 에콰도르 대원들은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 이집트 대원들은 진안공고에 배정된 상태다.

이들은 향후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 · 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화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진행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호응도 등을 토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주에서는 한옥마을과 오목대, 익산 원광대 · 원불교총부 · 왕궁리유적, 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 · 상설시장,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남원 광한루원과 국립민속국악원, 김제 금산사와 벽골제 ·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주 놀토피아와 대승한지마을 · 현대자동차 등 일명 BTS로드, 진안 마이산 · 미로공원(죽욕체험), 장수 승마레저파크 · 와룡자연휴양림, 무주 태권도원, 임실 전북 119안전체험관, 순창 강천상과 고추장익는마을, 고창 고창읍성과 선운사, 부안 한지체험관 · 내소사 · 청자박물관 ·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등 많은 관광지에서 잼버리 대원을 맞이한 바 있다.

유영욱 전북도 대변인은 "아직 잼버리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 기간 최소 9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약 7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조기 퇴영으로 인해 대부분의 참가자가 전북을 떠나면서 예정했던 모든 지역연계 프로그램들이 취소, 모처럼 살아난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가 다시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美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혁신도시에 전주사무소 개소

플랭클린 템플턴, 전북테크비즈센터에 사무소 마련
시장현황 조사 · 국민연금공단과 업무 연락 전담
금융산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금융중심지 도약 기대

전북도가 금융산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힘찬 도약에 나선다.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타릭 아흐마드(Tariq Ahmad) 아시아태평양 공동대표, 매튜 해리슨(Matthew Harrison) 아시아태평양 공동대표, 김태희 한국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관련사진 2면〉

이날 행사에는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함께 개소를 축하했다.

이어, 이들은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내 · 외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제대표 방문 등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프랭클린 템플턴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인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는 시장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전담하고, 지역의 금융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산운용사 및 수탁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전북에 안착한 데 이어, 프랭클린 템플턴이 개소하게 되면서 금융기관 추가 이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글로벌 금융기관의 개소로 전북도가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2026년 건립 예정인 전북금융센터를 비롯해 관련 인프라를 갖춰 국제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74년 뉴욕주에서 설립된 프랭클린 템플턴은 세계 10위권 자산운용사로 30여 개 국가에서 1,300여 명의 운용 전문인력이 주식 · 채권 · 시모 · 부동산 ·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총 1조4,000억 달러(USD)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오늘 오후부터 11일까지 태풍 '카눈' 영향권

도, 대처상황 점검 회의… 사전대비 · 점검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전북도는 8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걸쳐 태풍 '카눈'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별 대처 상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태풍 카눈은 8일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70hpa, 최대 풍속 35m/s 강풍반경 350k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북북동진하면서 3km/h 속도로 이동 중이며, 전북지역은 9일 저녁부터~11일 새벽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은 예상 강수량은 50~150mm 정도이고,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지반 침하, 침수 피해, 낙하 위험물 사고 등이 우려된다.

이에 임상규 부지사는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강풍 호우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및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과 저지대 등 침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징후 예상 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실시 등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임 부지사는"이번 태풍은 강력 태풍으로 위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께서는 TV, 인터넷, 재난문자 등에 송출되는 태풍 시 행동요령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 · 하천 · 해안가 등 위험지역 외출 자제와,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는 등 태풍 대비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